

청소년의 개인요인, 부모요인, 사회적 지지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구용근, 석말숙, 조옥선*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Converged Influence of Individual, Parental and Social Support Factors to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Yong-Geun Ku, Mal-Sook Suk, Ouk-Sun Ch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Nazaren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요인, 부모요인, 사회적 지지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 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강남과 강북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종분석대상은 375명이었다. 첫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적이 높은 집단이 보통인 집단보다, 주관적 경제수준이 좋은 집단이 보통과 낮은 집단보다 평균값이 더 높았다. 둘째, 청소년의 개인요인의 하위요인인 자아존중감, 부모요인의 하위요인인 자율-통제와 개방형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제형은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융합, 개인요인, 부모요인, 사회적 지지요인, 삶의 만족도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how factors such as individual, parental and social support influence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For the study, students living in Ganman and Ganbuk area of Seoul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 and final analysis targets were 375 students. First,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analyzed as following; the higher average values were presented on groups with higher grade and subjective economic level than normal. Second, it was evident that self-esteem for individual factors and autonomous-control for parental factors had positive correlation on th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life, whereas problematic factor had negative correl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 policies that can be applied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practice in order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life and seek intervention plans.

Key Words : Convergence, Individual factor, Parents factor, Social support factor, Life satisfaction

1. 서론

청소년기는 부모관계보다 또래관계를 더 중요시하며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과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과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갖게 되고, 이는 자신의 삶의 질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5년 OECD 72개 국가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서 평균 6.36점으로 71위를 차지하여[1],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

*Corresponding Author : Ouk-Sun Cho(sun16070@naver.com)

Received March 10, 2018

Accepted April 20, 2018

Revised March 28, 2018

Published April 30, 2018

은 이유 중 하나는 입시위주의 경쟁과 과중한 학습량과 시간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2].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시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속속 밝혀졌다[3,4]. 또한 후기 학령기는 이후 시기의 건강한 삶의 근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은 미래 사회의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5].

특히 부모는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존재다[6]. 이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민주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자녀의 심리적 안녕이 증진되고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반면, 방임이나 학대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건강한 발달을 방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7,8].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이전 발달 단계들에 비해 일방적이고, 의존적인 방향이 낮아지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 및 역동을 평가하는 핵심 요인이다. 청소년은 부모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하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진된다고 하여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기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 중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정폭력경험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의 삶의 만족은 부모요인 못지않게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10]. 즉, 사람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여기서 어떻게 마음먹느냐를 조종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능동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11-13].

또한 심리적 안녕감, 즉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삶이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긍정적 대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으며, 환경을 선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삶의 목적이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삶을 말한다[14]. 이와 같이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통제력이다. 높은 자기통제력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절제하고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황과 고통을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 요인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의 삶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해 간다는 사실이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최대한의 지지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항상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지지를 얻으면서 그 욕구를 충족하게 되므로, 청소년에게도 심리적 적응을 돕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사회적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 교사 또는 친구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친사회적 행동 또는 태도를 사회적 지지로 본 Norten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에게 1차적인 사회적 지지원은 가정환경이다[16]. 즉 부모와의 관계, 부모지지는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17]. 청소년의 생활범위가 가정에서 학교사회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 역시 청소년에게는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맺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관계의 장이 된다. 즉 교사는 청소년이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으로서 교사의 행동은 학업성취는 물론 인성 형성과 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성장해 감에 따라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지며 친밀한 친구 관계가 안녕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 가운데 친구지지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18].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가족, 친구, 교사 등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 생태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적응을 못하면 순조로운 발달이 힘들다[19].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 등,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에 있어서는 총체적인 삶의 질을 다루기보다는 청소년의 개인요인 혹은 환경요인에만 초점을 두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며, 두 범주에 속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

히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적인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행복지수, 즉 삶의 만족도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개인요인(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부모요인(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정폭력경험), 사회적 지지요인(교사지지, 친구지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마련하고 실천이론 및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청소년의 개인요인(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부모요인(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정폭력경험), 사회적 지지요인(교사지지, 친구지지)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강남 소재 중학교 2개와 강북 소재 중학교 2개를 임의표본추출방법(Convenient sampling)으로 표집 하여 청소년의 특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2학년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16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연구자가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와 추후 자료 활용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였는데 그 중 389(97%)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75(9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 202명(53.9%), ‘여학생’ 173명(46.1%)으로 남학생 분포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학업성적은 ‘중위’ 183명(48.8%), ‘상위’ 95명(25.3%), ‘하위’ 76명(20.3%)순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은 ‘좋다’ 179명(47.7%), ‘보통이다’ 145명(38.7%), ‘어렵다’ 29명(25.3%)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강남’ 187명(49.9%), ‘강북’ 188명(50.1%)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2.2.1 삶의 만족도

본 연구는 Huebner의 Multidimensional Student Life Satisfaction Scale(MSLSS)를 Keum가 번안한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20,21]. 측정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에 이르는 4점 Likert식 척도이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45로 나타났다.

2.2.2 개인요인

2.2.2.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Rogenberg가 개발한 척도를 Lee & Won이 번안한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22,23]. 측정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93으로 나타났다.

2.2.2.2 자기통제력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Gottfredson & Hirschi의 자기통제력 척도와 Kim[25]의 자기통제평정 척도를 Lee이 보완한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24,26]. 측정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Likert식 척도 20문항 중 타당도가 낮은 3문항을 제외하고 1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39로 나타났다.

2.2.3 부모요인

2.2.3.1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1999)이 개발하고 Choi이 보완한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27]. 부모양육태도 하위변인은 자율-통제와 수용-거부이다. 측정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율적, 수용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통제적, 거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척도의 문항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하위변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자율-통제 .847과 수용-거부 .713으로 나타났다.

2.2.3.2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 & Olson이 개발하고, Min(1991)이 변안하고 In이 보완한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28,29]. 측정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식 척도이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며, 낮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라는 의미이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해결지향적이며, 낮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지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하위변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개방형 .933과 문제형 .797로 나타났다.

2.2.3.3 가정폭력경험

가정폭력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Straus, Hamby, Finkelhor, Moore & Runyan가 제작하여 사용한 PCCTS(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척도를 기초로 Oh 변안한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30,31]. 가정폭력경험 하위변인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방임이다. 측정도구의 각 문항은 지난 1년 동안에 폭력 경험이 없는 경우 0점, 1회는 1점, 2회는 2점, 3-5는 3점, 6-10는 4점, 11-20는 5점, 20회 이상은 6점을 부여하였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12로 나타났다.

2.2.4 사회적 지지요인

2.2.4.1 교사지지

교사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 & Ulaman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Kim이 변안한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32,33]. 측정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식 척이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40로 나타났다.

2.2.4.2 친구지지

친구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 & Ulaman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Kim이 변안한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32,33]. 측정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16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변수는 각 변인들의 평균값을 뜻하며, 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요 변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적률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변인, 가족변인, 사회적지지 변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전체 분석의 유의수준은 $p < .05$ 수준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분석

본 연구대상의 개인요인, 부모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하위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Table 1과 같다. 가정폭력경험은 더미 처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3.76($sd=.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은 평균값 2.87($sd=.37$)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은 자율-통제와 수용-거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자율-통제 변수의 평균은 4.08($sd=.71$), 수용-거부 변수의 평균 2.49($sd=.75$)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375)

Variables		Min.	Max.	Mean	S.D.
Individual factor	①	1.11	5.00	3.76	.74
	②	1.50	4.96	2.87	.37
Parents factor	③	1.40	5.00	4.08	.71
	④	1.00	5.00	2.49	.75
	⑤	1.00	5.00	3.54	.83
	⑥	1.00	5.00	2.81	.75
	⑦	.00	1.00	.22	.27
Social support factor	⑧	1.00	5.14	3.60	.70
	⑨	1.14	5.00	3.97	.64
Life satisfaction		1.00	3.60	2.67	.63

① self-esteem, ② self-control, ③ parenting attitudes, ④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⑤ family violence experience, ⑥ friendship support, ⑦ teacher support, ⑧ self-control, ⑨ accept-reject, ⑩ open communication, ⑪ dysfunctional communication

셋째,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을 개방형, 문제형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방형 평균값 3.54(sd=.83), 문제형 평균값 2.81(sd=.7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경험의 평균값 .22(sd=.27)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사회적 지지요인의 하위요인인 교사지지 변수의 평균은 3.60(sd=.70)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구지지 변수의 평균 3.97(sd=.64)로 나타났다. 교사지지와 친구지지의 평균값은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평균값을 살펴보면, 2.67(sd=.63)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3.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는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결과 학업성적, 주관적 경제수준, 수입원 등의 변수가 유의수준 .05미만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따른 학업성적은 상위권인 경우, 평균이 2.82로 제일 높고, 중위권인 경우, 2.6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위권 집단은 중위권 집단과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998, p<.05). 또한 청소년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경우, ‘좋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평균이 2.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평균값 2.57, ‘어렵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46으로 나타났다. ‘좋다’라고 응답한 집단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집단과 ‘어렵다’라고 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F=7.033, p<.01). 가정의 수입원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부’ 평균값 2.77, ‘맞벌이’ 평균값 ‘2.56’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F=5.407, p<.01).

응답자의 거주지역인 강남과 강북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경우,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375)

Variables		N	Mean	t/F	scheffe
Gender	Man ^a	202	2.69	.850	-
	Woman ^b	173	2.64		
Academic results	Top ^a	95	2.82	3.998 *	a>b
	A lieutenant ^b	183	2.60		
	Low level ^c	76	2.66		
Subjective economic level	Nice ^a	179	2.79	7.033 **	a>b, c
	Middle ^b	145	2.57		
	Difficult ^c	29	2.46		
Residential area	Gangnam	187	2.70	1.042	-
	Gangbuk	188	2.63		
Source of income	Father ^a	193	2.77	5.407 **	a>b
	Dual-income ^b	159	2.56		
	Other ^c	23	2.57		

*p<.05, **p<.01, ***p<.001

3.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주요 변수 간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개인요인의 하위요인인 자아존중감은 부모요인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 자율-통제(r=.46 p<.01), 부모와의 의사소통 개방형(r=.48 p<.01), 사회적 지지요인의 하위요인인 교사지지(r=.42 p<.01)와 친구지지(r=.45 p<.01) 등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부모요인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 자율-통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개방형(r=.73 p<.01), 삶의 만족도(r=.63 p<.01)와 아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 또한 부모요인의 하위요인인 수용-거부(r=-.48 p<.01), 문제형(r=-.48 p<.01), 가정폭력경험(r=-.39 p<.01) 등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지지요인의 하위요인 교사지지(r=.40 p<.01)와 친구지지(r=.28 p<.01)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교사지지는 개방형(r=.47, p<.01), 삶의 만족도(r=.40, p<.01) 등의 순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개방형($r=.29, p<.01$), 교사지지($r=.36, p<.01$) 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개인요인과 사회적 지지요인, 가족요인의 하위요인 자율-통제, 개방형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용-거부, 문제형과 가정폭력경험 등의 변인과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3.4 연구대상의 개인요인, 부모요인, 사회적 지지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간의 관계를 수학적 모형으로 나타내고 변인들로부터 관측된 값을 활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여 이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 및 예측하는 통계분석 방법이다(임병우·주경희·손용진, 2015).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요인, 부모요인, 사회적 지지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개인요인, 부모요인, 사회적 지지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통제변수로 성별, 학업 성적, 주관적 경제수준, 거주지역(강남, 강북)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 학업성적, 거주지역 등은 더미처리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개인요인의 하위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Key Variables

(N=375)

Variable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9	10	
Individual factor	1	1									
	2	.13*	1								
	3	.46**	.16**	1							
Parents factor	4	-.29**	.03	-.48**	1						
	5	.48**	.27**	.73**	-.44**	1					
	6	-.36**	.07	-.48**	.62**	-.46**	1				
	7	-.26**	.03	-.39**	.39**	-.38**	.53**	1			
Social support factor	8	.42**	.12*	.40**	-.19*	.47**	-.20**	-.16**	1		
	9	.45**	.06	.28**	-.13*	.29**	-.08	-.09	.36**	1	
Life satisfaction										1	
		.53**	.15**	.63**	-.39**	.68**	-.47**	-.34**	.40**	.34**	1

① self-esteem, ② self-control, ③self-control, ④ accept-reject, ⑤ open communication, ⑥ dysfunctional communication, ⑦ family violence experience, ⑧ friendship support, ⑨ teacher support. * $p<.05$, ** $p<.01$, *** $p<.001$

Table 4. Effects of Personal, Parents and Social Support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Model	B	s.d. error	β	t	VIF
Individual factor	Constant	.316	.295		1.072	
	Self-esteem	.142**	.040	.168	3.509	1.785
	Self-control	.018	.066	.011	.271	1.217
Parents factor	Self-control	.141**	.050	.159	2.836	2.449
	Accept-reject	.011	.039	.013	.288	1.697
	Open communication	.286**	.044	.386	6.497	2.753
	Dysfunctional communication	-.115**	.043	-.137	-2.660	2.066
Social support factor	Family violence experience	-.032	.106	-.013	-.304	1.494
	Friendship support	.029	.038	.034	.777	1.458
	Teacher support	.075	.041	.079	1.847	1.414
Control variable	Gender	.039	.046	.031	.834	1.088
	11academic results 2	-.059	.069	-.042	-.855	1.908
	Academic results 1	-.074	.058	-.060	-1.273	1.712
	Subjective economic level	.056	.038	.058	1.473	1.212
	Residential area	-.058	.049	-.047	-1.188	1.201
	R^2			.567		
	Adjusted R^2			.549		
	F			31.613**		
	Durbin-Watson			2.075		

Reference) gender(man:1, woman:2), academic results 1(top:1,lieutenant/low level:0), academic results 2(lieutenant:1, top/low level:0), residential area(gangnam:1, gangbuk:2), * $p<.05$, ** $p<.01$, *** $p<.001$

요인 중 자아존중감($\beta=.142$ $t=3.509$)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면 청소년은 삶에 대한 만족감이 상승곡선을 긋는다고 판단된다.

둘째, 부모요인에서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의 하위요인 자율-통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41$, $t=2.836$).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율적이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 만족감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요인의 하위요인 문제형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155$, $t=-2.660$). 개방형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eta=.286$, $t=6.497$),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와 대화함에 있어 권위적으로 소통하는 것보다 개방적인 마인드로 임하면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개인요인의 하위요인 자기통제력과 부모요인의 하위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수용-거부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0.05 미만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요인에서 살펴보면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56.7%로 높게 나타났으며, 회귀

모형의 분석결과 검정통계량($F=31.613$)도 유의수준 .001미만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구자의 연구모형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수들 간의 분산팽창계수(VIF)가 모두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요인(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부모요인(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정폭력경험), 사회적 지지요인(교사지지, 친구지지)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학업성적, 주관적 경제수준, 수입원 등의 변수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은 하위권 집단보다 상위권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의 학업성적이 행복감의 기준이 된다고 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34,35]. 이는 학업성적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좋다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보고이다[34]. 이는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원의 경우에는 부의 집단이 맞벌이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모의 애정관리가 있어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개인요인, 부모요인의 하위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자율-통제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하위요인 개방형, 사회적 지지요인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용-거부, 문제형과 가정폭력경험 등의 변인과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개인요인의 하위요인 자아존중감과 가족요인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 자율-통제, 부모와의 의사소통 개방형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 [13,36], 부모의 양육태도[37],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보고이다[9].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율적으로 양육될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족요인의 하위요인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형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학업성적을 높이면 된다고 했으나 청소년에게 공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동아리활동, 여행 등이 필요하다.

다. 주관적 경제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청소년이 가정 생활에 만족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가정의 수입원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간제 근무와 같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태도의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교육과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첫째, 연구대상자를 중학교 2학년으로 정했으나 연령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하여 청소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횡단조사에 의한 연구를 했으나 급변하는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단조사를 통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요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았으나 삶의 만족도는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I. Kim. (2017). A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Model for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1(2), 129-142.
- [2] G. D. Hong & H. K. Kim. (2017). Sensor-based convergence system in Ubiquitous Environ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1), 1-6.
- [3] K. J. Kwak. (1995).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in Terms of KLSSA.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Social Issues*, 2(1), 5-16.
- [4] H. Y. Koo, H. S. Park & Y. H. Jang. (2006). Satisfaction with life and it's predictors of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1), 151-158. DOI : 10.4040/jkan.2006.36.1.151
- [5] H. Y. Chun & M. R. Lee. (2015). Clustering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Focused on Personal,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Life Facto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5), 1-24.
- [6] B. S. Min. (1991).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Concept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7] S. K. Kim, M. K. Park & J. S. An. (2014). The Influence of School Adjustment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2), 163-182.
- [8] J. E. Kwon, E. J. Lee & C. R. Nho. (2013). Mediating Effects of Teacher and Peer Relationship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buse and Neglect and School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2, 29-54.
- [9] Y. H. Kim & M. H. Kang. (2008).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Happiness, Personality Type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tern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6), 35-54.
- [10] Y. M. Kim & Y. S. Lim. (2013).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al Over-Involvement,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Welfare*, 15(2), 343-366.
- [11] J. Y. Kim & H. J. Chung. (2008).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Adolescents. *Social Welfare Research Institut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13, 171-190.
- [12] C. G. Kim. (2013). Effects of Perceived Death and Self-esteem on Meaning in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3), 539-550. DOI : 10.5932/jkphn.2013.27.3.539
- [13] J. W. Moon. (2012). The Effect of Obesity, Depression, Self-Esteem, Body Image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3(2), 119-146.
- [14] K. H. Cha. (2004).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11(3), 321-337.
- [15] C. S. Ha. (2004).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Korean Version of the Self-Control Scale in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4), 1339-1353. DOI : 10.15703/kjc.8.4.200712.1339
- [16] P. W. Norten.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SA.
- [17] H. W. Kim, S. Y. Cho & M. Kim. (2010). Effects of Significance of Study, Pressure for Study and Success on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5), 49-60.
DOI : 10.6115/khea.2010.48.5.049
- [18] S. P. Hong. (2008).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on Children's Self-concept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7(2), 311-321.
- [19] J. A. Ryu. (2003). An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20] E. S. Huebner.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 149-158.
DOI : 10.1037//1040-3590.6.2.149
- [21] J. K. Keum. (1995).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in Terms of KLSSA.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1), 5-16.
- [22]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3] H. J. Lee & H. T. Won. (1995). Self-Concepts and Paranoid Tendency. *Psychological Science*, 4(2), 15-29.
- [24] M. Gottfredson &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25] H. S. Kim. (1998). *Model Development of Affecting Factors on Health Behavior and Juvenile Delinquency of Adolescents*. Department of Graduate School of Seoul University, Seoul.
- [26] G. W. Lee. (2001). *(The) Study on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7] H. S. Choi. (2002).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Social Environment Variables, Personal Variables and Career Maturity Attitude of early Adolescents*.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Seoul.
- [28] B. K. Barber & J. A. Olson. (1977). Socialization in Context: Connectio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and with Pe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287-315.
- [29] C. H. In. (2013). *The Effect of Children's Personality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Problem Behavior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Dongduk Womans University, Seoul.
- [30] M. Straus, S. Hamby, D. Finkelhor, D. Moore & D. Runyan.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 249-270.
DOI : 10.1016/s0145-2134(97)00174-9
- [31] H. J. Oh. (2004). *Effects of Childhood Abuse and Exposure to Parental Violence on Problem Drinking in Later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32] E. F. Dubow & D. G. Ullman.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1), 52-64.
DOI : 10.1207/s15374424jccp1801_7
- [33] M. S. Kim. (1995).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of Children*. Department of Child Study Major in Child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34] J. Y. Lee & Y. S. Oh. (2014). Articles: What is Important for the Happines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1(2), 1-31.
- [35] Y. S. Jun & Y. S. Choi. (2017). Study on the Influence of Children's GPA on the Happiness of Parents and Themselves.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24(2), 473-490.
DOI : 10.21509/kjys.2017.01.24.2.473
- [36] M. J. Heo, M. W. Noh & Y. S. Choi. (2016).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Verifying Moderated Mediation of Peer Relations Mediated by Altruism and Self-Regulation.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1(1), 29-49.
DOI : 10.21321/jfr.21.1.29
- [37] J. A. Paik. (2015).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in the Times of Converg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3(9), 453-461.
DOI : 10.14400/jdc.2015.13.9.453

구 용 근(Ku, Yong Geun)

[정회원]



- 1997년 8월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1997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5년 1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회 연구위원

-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정책
- E-Mail : motive2919@naver.com

석 말 숙(Suk, Mal Sook)

[정회원]



- 1987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8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1998년 12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School of

Social Welfare (M.S.W)

- 200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 가족
- E-Mail : swmalsuk@kornu.ac.kr

조 옥 선(Cho, Ouk Sun)

[정회원]



- 1987년 2월 : 충남대학교 수학과(이학사)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2월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외래 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 청소년, 가족, 여성
- E-Mail : sun16070@naver.com